

“하나님만 바라보는 금식”  
(마태복음 6:16-18)



■ 들어가는 말

언제, 어떤 상황에서 밥을 굶어 보았습니까?

■ 말씀 속으로 - 들어가 봅시다. (마 6:16-18)

- 16.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 17.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 18.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1.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말씀하신 ‘의’, 곧 하나님을 향한 종교 행위는 무엇입니까?

=> 금식

2. 금식이란 무엇입니까?

=> 슬픈 일이나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삶의 의욕이 다 꺾여 아무 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을 낮추는 행위입니다.

3. 당시 사람들은 금식을 할 때 어떻게 보이려고 했습니까?

=> (16절)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4. 예수님은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 금식할 때 전혀 금식하는 티를 내지 않고 평상시와 같이 얼굴을 씻고 기름을 발라 아주 밝고 유쾌하게 지내라는 뜻입니다. 내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일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보이면 됩니다.

5. 금식하며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지극히 낮추는 자세를 말합니다. 최근에 금식하면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응답을 체험한 것이 있으면 나누어 봅시다.

=> (돌아가면서 나누어 봅시다.)

■ 기도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며 의지해야 할 것들을, 사람을 의식하거나 자랑하는 통로로 삼지 말게 하옵소서. 진실한 금식과 기도를 통해 나의 낮은 마음이 하나님 앞에 그대로 전달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초 청 합 니 다

참 좋은 교회가 있습니다.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이,  
상처가 있는 곳에 위로가,  
절망하는 이에게 희망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기 그분을 만날 수 있도록  
잘 인도하는 참 좋은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온양삼일교회입니다.

“온양삼일교회”는 당신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당신에게는 누군가로부터 칭찬을 받을만한 아름다운 삶(신앙)의 이야기가 있나요? 이번 기회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아름다운 삶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